

“누군가 인정했으면 복종하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강자라고 보십니까, 약자라고 보십니까?

현 기성세대들은 여러분들에게 스펙을 강요하고, 여러분은 그 스펙을 쌓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스펙을 쌓아도 취업은 잘 되지 않고 비정규직이 되기 일수입니다. 사회는 그런 여러분들을 88만원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여러분은 세상의 약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약자는 많습니니다. 나보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있고, 대학등록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 지금도 어디선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강자라 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은 늘 강자로 남지도, 약자로 남아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강자로서의 면모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강자로서의 면모를 가지려면 강자한테는 강하고, 약자한테는 약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것이 우리를 모습입니다.

인간의 특징은 심합니다. 번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생태계에서 어떤 작은 동물이라도 한 종이 멸종되면 50년 내로 생태계는 파괴됩니다. 우리는 생태계에서 강자입니다. 그러므로 약자에게 배려를 해야 합니다. 밀렵의 강자인 사자는 약한 동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태계의 지존인 인간도 다른 생명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광고인데, 보통 광고회사에서는 광고주를 속칭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님'들의 행태는 이렇습니다. 금요일에 저희에게 오더를 주고 월요일날 프레젠테이션을 해달라고 한다던가, 크리스마스 다음날 보고를 해달라고 합니다. 강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에 응해줘야 합니다.

광고 감독은 이들의 주문을 받아 광고를 만듭니다. 광고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독을 만날 때에는 광고주처럼 대하고, 광고주는 감독처럼 대하라고 합니다.

영화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덩블도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어떤지 알려면, 그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진짜 멋진 사람은 약자에게 한없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박웅현의 '공존'



강한 자에게 강할 수 있는 건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는 이런 사람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동의되지 않는 것에는 굴복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 말에 동의했다면 바로 복종해야 합니다.

사회는 권위를 강요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한 회사의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마음대로 말도 걸지 못하고, 무조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왜 머리를 숙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하는 법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애플사에 놀러간 한 사람이 회사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는데, 뒤 배경에 티셔츠 차림에 햄버거를 먹으면서 걷고 있는 스티브 잡스의 모습이 찍힌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라면 가능할까요?

2011 청춘 토크파티 - 서울시립대 편

문수 스님 소신공양 1주기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2011 청춘 토크파티'를 개최했다. 행사는 '청춘 더(The) 나는 세상을 상상하자'를 모토로 6명의 강연자들이 공존 정의 행복 변화 희망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 스님은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은 청년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하는 의지였다. 하지만 소신공양하신지 1주기가 됐어도 청년들이 사는 세상은 여전히 우울하다"며 "과거 프랑스 6·8혁명 당시 젊은이들이 '상상력이 권력이다'라고 외친 것처럼,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들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목소리를 거칠고 신명나게 쏟아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9월 22일 첫 강연이 열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 대회의실에서는 박웅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미래를 재 정의하기 위한 조건, 공존을 상상하자'를 주제로 공존에 대해,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는 '더 정의로운 세상을 기획하자'를 주제로 정의에 대해 강연했다.

강연에 이어 2부 세션에서는 100명의 청춘들이 10개의 테이블에 모여 앉아, '우리가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은 무엇인가'에 대해 토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행사는 9월 27일 동덕여대에서 '행복과 변화'를, 9월 29일 동국대에서 '희망과 사랑'이란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다.

정리=이은정 기자

영을 했는데, 뒤 배경에 티셔츠 차림에 햄버거를 먹으면서 걷고 있는 스티브 잡스의 모습이 찍힌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라면 가능할까요?

이 세상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려가 필요합니다. 강한사람한테 강하려면 강요된 권위인지, 우러난 권위인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투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지 않은 권위에는 투사가 돼야 합니다.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강약 조절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하려면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실력을 가꿔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진짜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해라
공존을 위해서는 강약조절 필요
옳고 그름 판단하려면 실력 갖춰야
스스로 존중해야 결국 강해져

여러분들의 실력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참 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핵심을 맞춰야 합니다.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하는 행동은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자한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옳은 것은 반드시 이기는 법입니다.

저는 83학번입니다. 당시 제가 대학생할 때 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통치를 할 때입니다.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내놓은 슬로건이 바로 '정의 사회 구현'이었습니다. 저의 꿈은 원래 소설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설가가 되기 위해 국문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돈을 왕창 벌거나 권력을 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문과에 진학해 보니, 돈을 잘 벌 것 같지도 않고 판검사도 되거나 정치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소설가 김유정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김유정처럼 농촌 생활을 반영하는 소설

바르지 못한 세상은 과감히 비판
비판이 넘어서야 대안 만들어져
박원순 "정의는 강자 이익"
"약한 자 돕는 것이 정의 실천"

을 써서 농촌 부흥에 힘을 보태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학에 진학해 공부를 하고 보니 3개월 만에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플래카드에 이런 문구가 써있던 기억이 납니다. "역사와 민족이 여러분을 기다린다." 요즘과 달리 당시 대학 내에는 경찰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 친구들과 선배들이 한 명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당연히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저는 소설을 쓰겠다는 제 꿈을 포기했습니다.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지 못하는 사회는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정의로운 사회구현 모두가 힘 모아야”

오연호의 '정의'



저는 이런 일환으로 대안 언론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출간 후 저는 '월간말'에 입사해 심층취재 전문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또 보도지침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대로 된 정의를 구현하려면 우선 저의 실력을 쌓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정보화·세계화로 흘러가는데, 월간지 기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저는 그저 열심히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뭔가 능력을 갖춰야만 했습니다.

저는 당시 회사에 워싱턴 특파원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현지 비용은 일체 개인이 부담하겠다는 계약서를 쓴 뒤 저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3년 동안 워싱턴 특파원으로 생활하면서 진짜 대안을 만들어야만 판을 깔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로 '오마이뉴스'를 창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도 아직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무언가를 또 바꾸기 위해서 작년부터 서울대 조국 교수와 함께 <진보집권플랜>을 함께 썼습니다.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절대 이뤄지지 않습니다. 정의는 우리가 모두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게스트로 초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박 후보가 생각하는 진정한 정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박원순: 현대의 정의는 강자의 이익입니다. 힘센 사람이 바로 정의가 됩니다. 제가 동의하는 정의는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 본래 찾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라 봅니다. 그것을 막는 일 또는 힘이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정의의 실천이라고 봅니다. 또한 만인의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휴게소 화장실 이용은 남자보다 여자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 휴게소에 여자 화장실을 더 늘린 다거나, 여자에게 수영장 이용 가격을 낮추는 것 등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실질적 평등이 사회에서 실현돼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사실을 미화시켰습니다.

소설보다는 사실을 쓰는 게 저는 더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저는 단편소설을 여러 편 쓰고 있었는데, 소설 쓰기를 중단하고 바로 유인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사회를 비판한 졸업 작품으로 1년 동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는 바로 바른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는 과감히 비판을 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소극적인 행동일지 모르지만, 어진 정의의 실천입니다. 그러다 보면 비판이 넘어서 대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두환 정권이 싫으면 민주정권을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사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 등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희산 복반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임을 인식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샵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200질 한정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회법'이라고도 한다.

현불샵 02)2004-8215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철 | 금강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미색 80그램 | 율케이스 | 전철2도 인쇄